



윤석열 후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일 대선에서 승리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후보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모두 함께 애써준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 스였던 것 같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두 분께도 감사하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선거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고, 선거를 하는 경쟁을 하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제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

도록 하겠다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성숙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함께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48.6%(16,394,815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16,147,738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가금현 기자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민의힘 압승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최재형
52.09%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조은희
72.72%



경기 안성시

국민의힘
김학용
54.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민의힘
정우택
56.92%

5곳 중 4곳 승리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총 5곳 중 4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재·보선이 실시된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대구 중·남구다.

서울 종로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4만9637표로 과반(52.09%)을 득표해 당선됐고, 서초구갑에서는 조은희 후보가 4만8979표(77.41%)를 얻어 당선됐다.

또 충북 청주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6만7033표(56.92%)로 2위 무소속 김시진 후보 3만8637표(32.81%)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증을 받았으며,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가 6만1445표(54.18%)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광산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 무공천을 선언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 남구정장 출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3만2037표(22.39%)로 당선됐다.

/정민준 기자

당진시, 환경관리 '엿망' 주민건강 우려

충남 당진시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 관내 콘크리트 취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진시출입기자단은 10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콘크리트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는 주변 현황을 살펴봤다.

이들 업체 주변 도로를 모두 뿌연 콘크리트 가루로 뒤집어쓰고 있었으며, 차량 운행시 뿌연 먼지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날랐다.

업체 내부 또한 작업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고스란히 인근 마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수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를 PM10 미세먼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를 PM2.5 초미세먼지"라 한다고 말하고 "머리카락 굵기의 약 5~7분의 1인 PM10을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PM10보다 큰 입자는 코나 기관지의 섬모(털)와 점액에 의



해 많이 걸러지지만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걸러지지 않고 폐의 속까지 침투, 폐에 자극을 주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즘 미세먼지는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초미세먼지(머리카락 굵기의 약 20~30분의 1)의 경우 입자가 너무 작아 혈액에 침투하는 것이 가능해 혈액 안에서 녹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전과 함께 혈관을 막아 치명적인 질환 및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 했다.

/한성진 기자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인터뷰]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전국종합
- ▶ 6면 전국교육
- ▶ 7면 전국교육
- ▶ 8면 전국교육
- ▶ 9면 전국종합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새의자

- ▶ 1면
- ▶ 2면
- ▶ 3면
- ▶ 4면
- ▶ 5면
- ▶ 6면
- ▶ 7면
- ▶ 8면
- ▶ 9면
- ▶ 10면
- ▶ 11면
- ▶ 12면

교육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윤석열 후보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합니다"라며,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준비, 기후위기와 디지털혁명을 대비하는 학교공간혁신 등이 그라합니다. 또한, 작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과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잘 이뤄지도록 새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저희 교육감들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변화에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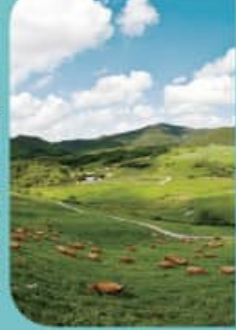
이어서 "향후 국민이 선택한 새정부 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으며, 교육자 치의 발전을 위해 새 대통령께서 교육 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주시기를 당 부드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정연주 기자

떠나자!! 가슴 설레는 서산으로~~~
서산 대표 관광 명소



•삼길포항



•서산한우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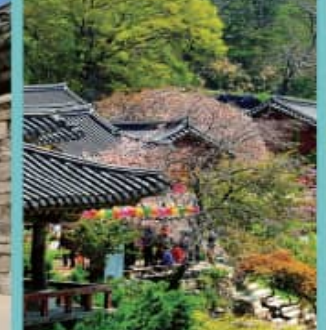
•간월암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서산해미읍성



•개심사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

서산시
SEOSAN CITY